

대전지방기상청 여름철 기상재해를 대비하다

- 2024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

-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경희)은 방재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여름철 위험기상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「2024년 여름철 방재 기상업무협의회」를 5월 9일(목) 14시에 대전지방기상청에서 개최하였다.
- 방재기상업무협의회는 대전·세종·충남 소재 방재기관은 물론 하천, 도로, 농업 등 26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청 주요 예보정책 변경사항, 지난 여름철 기후특성 및 3개월 기상 전망, 기상관측표준화 및 공동활용 등을 소개하고, 유관기관 간 방재 대책을 공유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의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.
-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봄철에도 강수강도가 강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, 기상 재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재해대응 정보를 공유하며, 여름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은 “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효과적인 방재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	장재동 (042-363-35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숙 (042-363-3521)

붙임 관련사진

